

서울카드 하나로... 책 빌리고 강의 듣고 '시민답게'

서울시민카드 2.0 달라지는 점

가입 5만명 돌파... 30만명 확보 목표
추가 가입 사라지고 통합인증기능 더해

서울시민카드 가입자수가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연내 모든 시·구립 시설과 서울시민카드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해 올해 30만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카드는 공공시설에서 발급되는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통합한 모바일 앱이다. 지난 2017년 12월 첫선을 보였다. 통합바코드는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에서 강좌를 수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서울시민카드 2.0 도약'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이용률 제고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억4800만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3억924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서울시민카드 누적 회원수는 5만2019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022명으로 시작해 2018년 하반기 3만4887명을 기록했다. 올 3월에는 5만여명을 넘어섰다.

시는 서울시민카드 2.0 도약을 위해 ▲연내 시·구립시설 연계 완료 ▲온라

인 시설가입 및 앱 이용 간소화 ▲'서울시 공공서비스 포털'로 혁신 ▲민간 제휴 시민혜택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서울시민카드를 시내 전 시·구립시설과 연계한다. 현재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청소년·보육시설 525곳(72%)과 연계를 완료했다. 연말까지 728곳(10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경찰박물관, 교육청 도서관, 롯데월드 민속 박물관 등 국공립·민간시설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조화·출입 기능 외에 주차료, 입장료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앱 이용 시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혔던 추가 회원가입 절차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시민카드 앱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추가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앱을 받아 시립청소년수련관 카드 등록을 시도해 봤더니 서울시

민카드 가입 외에 추가로 3단계를 더 거쳐야 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회원 가입을 해야 했다. 이후 프로그램을 접수·결제하고 현장에서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등록할 수 있었다. 시는 시민카드 앱에서 공공시설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민카드 앱을 '서울시 공공서비스 포털'로 혁신한다. 5개 공공마일리지(에코, 승용차, ETA X 등)를 통합 전환한다. 공공시설 이용료(주차료 등)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기능과 따릉이·찾동 등 타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합 인증 기능을 추가한다. 채용·입찰·지방세 고지 알림 등 각종 시정뉴스도 제공한다.

오는 8월부터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

해 사용자 위치 근처의 민간제휴행사 정보를 자동으로 알리는 푸시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도록 해 시민카드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공공시설 연계확대, 서비스혁신, 시민혜택 제공 등으로 올해 회원수 30만명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낡은 골목길 살린다

서울시, 13곳서 본격 추진
2021년 사업 마무리 예정

서울시가 올해 시내 13곳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공포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용산·성북구에 이어 11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서울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역사문화적 숨길 보존 ▲낙후된 환경 개선 ▲공동체 복원을 골자로 한 서울시 제정 조례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에서 대규모의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내외의 소규모 '선' 단위로 이뤄진다. 폭 4m 이내의 생활 골목길이나 10~12m 이내의 골목상권, 보행중심 골목이 그 대상이다.

예컨대 폐가를 카페·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담장 낮추기, 골



목 마당 공유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서대문구는 노후 주택이 많고 골목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간 마찰이 잦았다. 이에 시는 골목관리소를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천구 말미마음은 폭 1~8m, 길이 900m의 가파른 구릉지에 있어 노후주

택과 빈집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성북구 골목길을 제외한 11곳은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지별로 3년간 총 10억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구의 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해 추가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3분의 1 이상은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주택이다. 424개 동 중 4m 미만 보행자 도로는 286개동에 분포해 있다. 이는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한다. 시는 골목길 재생을 통해 재건축이 어려운 4m 미만의 보행자 도로가 있는 지역과 재개발 해제지역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지역을 재생해 슬럼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다목적홀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정책대화' 행사를 연다. 1차 선정지 주민과 건축·도시계획·마을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여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 출범

자문단 구성·연구소 설립 추진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재난 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싱크탱크인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을 구성,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개 추진반으로 꾸려졌다. 시와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은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제안 및 연구 자문을 수행한다. 8일 첫 간담회를 가진다. 최근 서울시가 환경부에 제안한 미세먼지 시진제와 관련 정부와 협력해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시행방

안을 논의한다.

미세먼지 연구소는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시의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연구의 협력 체계를 구축, 체계적인 미세먼지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분석과 전문적인 기술검증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도출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의 제안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전관예우 명목 퇴직공무원 로비 '원천봉쇄'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규정 강화
직무 관련 골프·여행 등 원천 금지

경기도내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도지사 결재를 받아 4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 관련 골프, 여행, 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금지하고, 그 외 청사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 대상에 포함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가 가능하고 신고의무를 2회 위반할 경우에는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공무원, 상급자·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포함시키고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과도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내달 '국제 아마추어 e스포츠' 개최

韓·中·日 등 5개국 170여명 참가
'리그 오브 레전드' 등 3개 종목 진행

경기도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e)스포츠 육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국제 아마추어대회를 열린다.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 아마추어 이(e)스포츠 대회를 여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오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2019플레이엑스포(2019 PlayX4)가 열리는 킨텍스 특별무대에서 '월드 이(e)스포츠 챌린지 2019(W.E.C)'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언노운스배틀그라운드',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5개국 170여 명의 아마추어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상금



은 종목당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으로 3개 종목에 걸쳐 총 2,400만원이 주어진다.

한국 예선은 월드

이(e)스포츠 챌린지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본선에는 국가별 예선을 통과한 40개 팀이 격돌하게 된다. 한국은 예선을 통해 26개 팀을 본선진출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각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팀에 도에서 추진 중인 아마추어 이(e)스포츠 선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